

제3지대·개헌론...孫·安 ‘동상이몽’

손학규-국민의당 일단은 우호적 분위기 핵심 문제에는 이견

2년 2개월여 동안의 집거를 끝내고 정계로 돌아온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손 전 대표와 그의 정계 복귀 전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냈던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이다. 일단 손 전 대표와 국민의당 사이 길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제3지대와 개헌 등 정치적 주도권 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맞닥뜨리면 ‘동상이몽’의 냄새도 맡아볼 수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1일 “안철수 현상이랄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희하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걸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인 이윤영 씨와 함께 구가동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계복귀 선언과 함께 펴낸 책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에 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관련 대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 내용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8월 안 전 대표가 강진으로 찾아와 합류 제안을 하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합시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안 전 대표가 지난 8월 손 전 대표를 찾아 강진을 방문했을 당시 “국민의당의 새로운 당명을 포함해 모든 당 운영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손 전 대표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나도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적었다.

손 전 대표는 상경 후 안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화기 와서 어제 저녁에 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카페 허그인에서 열린 제1기 청년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축사를 통해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를 드렸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입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하하”라며 기자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우리는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를 환영했고, 당적을 버린 손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국민의 당과 함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며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 박근혜정부의 독선, 새누리당의 견집을 수 없는 광폭 행보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경륜과 모든 것을 갖춘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자신과 안철수 전 대표가 손 전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손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제3지대 연대는 당장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손 전 대표가 당분간 자신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손 전 대표 측근들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당분간 다른 여야의 대선 주자들처럼 외부 일정을 소화하거나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긴 공백 기간을 메울 인적·물적 토대를 재건하는 데 일단 집중할 계획이다. 또 손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개헌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을 열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안 전 대표는 “개헌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청년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뒤기자들을 만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우선은 지금 현행법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의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잘 이뤄지는 상태에서만 더 큰 합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계’ 이개호 “민주 탈당 없다”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진순(진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23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의 탈당 등 ‘손학규계’ 일부 의원들의 동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손학규 전 대표와 소통할 수 있다”며 “동반 탈당은 현실적이지도,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그 어려울 때 민주당을 지켰다. 호남과 시대적 과제인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도 내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 탈당하는 것 보다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손 전 대표는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구상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손 전 대표가 정권 교체 길을 만들어 내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진순계의 핵심인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식 탈당했다. 전남 손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와 탈당을 선언한 이후 첫 동반 탈당이다. 그는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 당시 손 전 대표가 수원 장안에서의 구원 등판을 사양하고 선거지원에 나서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손 전 대표의 도움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며 “당적을 떠나 손 전 대표의 새판짜기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도리”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5%...박대통령 지지도 최저치 경신

갤럽, 새누리·민주당 29%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18명(신뢰수준 95%±3.1%p)을 상대로 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5%를 기록했다. 이는 9월 둘째 주 33%에서 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던 지난주보다도 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4%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해 취임 후 최고치에 달했다.

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새누리당과 동률을 이룬 대조적인 면모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의 지지도가 새누리당과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10%에 그쳤다. 한편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방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장 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潘 “1월 귀국...나라 위한 역할 고민할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 중순에 한국으로 귀국해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내년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친구 등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 돌아가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 동안 일군 성과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 총장은 올해 말까지는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 총장의 인터뷰 내용은 지난 9월 유엔본부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 일행과의 면담에서 밝힌 이야기와 같다. 당시 3당 원내대표까지 함께한 면담에서 반 총장은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찾아보고 보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 총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데 안보리가 때로는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북한이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아직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비대위원장 내려놓는 박지원...차기 인선은 안갯속

중진 정동영·김동철, 초선 신용현·오세정 등 거론...28일 선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4개월 동안 맡아온 비대위원장직을 이번 주 내려놓는다. 박 위원장은 오는 28일 차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성격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기존의 원내대표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그는 지난 6월 29일 ‘4·13 총선 홍보비파동’의 책임을 지고 안철수 전정배 전

공동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후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하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 톱’ 체제 하에서 당헌당규 제·개정과 윤리위원회 등 각종 당내 기구와 시·도당위원회 구성, 당비 납부 체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국민의당은 제 골격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쌀 값 대

책, 세법개정안 등 정책적 현안에도 순발력 있게 대응,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연말로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의 백전노장인 박 원내대표가 당권을 친다면 대선 정국에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명분으로 여야를 주무르며 대선의 구도와 흐름을 바꿔놓는 ‘키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좀

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중진들 가운데서는 정동영, 김동철, 조배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초선 가운데서는 비례대표 신용현, 오세정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주승용 의원은 비대위원장 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24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매듭지어 의결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